한미여성회 문화 클래스

SING KAWA — 지휘: Grace Tak — Monday

매주 월요일 10:30 am - 12 pm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정기봉사공연 실시

오페라감상 — 강사: James Lee — Tuesday

매주 화요일 3 pm - 5 pm
유명 작곡가의 오페라감상과 함께
풍부한 음악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좌

민화그리기 — 강사: 성기순 — Tuesday

매달 1째, 3째 주 화요일 11 am - 1 pm
한국전통 색채와 미를 배우는 과정

서양미술사 — 강사: May Chung — Wednesday

매주 수요일 11 am - 1 pm
서양 원시미술로 부터 중세를 거쳐
인상주의에 이르는 폭넓은 교양강좌

스마트폰 강좌 — 강사: 정성희 — Thursday

매주 목요일 10:30 am - 12 pm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카카오톡 사용법 , 기능활용

Certified Nurse Assistant — 강사: Henry Kim — Friday

매주 금요일 10 am - 4 pm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어준비과정

뜨개질 강좌 — 강사: 조영숙 — Friday

매주 금요일 11 am - 1 pm
대바늘, 코바늘 뜨기로 다양한 소품 완성

요리 강좌 — 진행: 초빙강사 — Friday

매주 금요일 11 am - 12:30 pm
요리 기초에서부터 손님 접대에
응용할 수 있는 알찬 동 서양 요리강좌

사회봉사 Community Outreach

전화상담 Talk-Line Counseling

이민사회에 필요한 가정문제, 신앙과 사회갈등을 전문인의 상담을 통하여 갈등해결, 문제예방,중재를 적극 돕습니다.
10 am – 4 pm (Mon. – Fri.)
Tel : (323) 660-7979 (친구친구)

이웃돕기 Helping Hands

전화상담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께 생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선물 Love Box

전화상담 내담자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간단한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Care Lunch

전화상담을 통해 연결된 말기암환자들에게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 KAWA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원하시는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봉사 지원하기 Volunteer Opportunity

아기옷 바느질 봉사 Sewing Volunteer

저소득층 신생아들을 위한 옷을 손수 만들어 산모와 아기들이 퇴원할 때 선물 하고 있습니다.
Hollywood 차 병원: 매달 2,4째 화요일 10 am – 2 pm
Good Samaritan병원: 매달 1,3째 화요일 10 am – 2 pm

뜨개질 봉사 Knitting Volunteer

무릎덮개 뜨개질 봉사

휠체어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릎덮개를 만들어 선물하고 있습니다. 3,000 개를 목표하고 있으며 4년 여 동안 약2,000명의 환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St. Vincent 병원: 매달 1, 3째 화요일 10 am – 2 pm

목도리 뜨개질 봉사

상이군인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봉사자들께서 손수 목도리를 만들어 선물 하고 있습니다.
KAWA회관: 매달 2, 4째 화요일 10 am – 2 pm

양로 병원 위로 봉사

Sing KAWA에서는 다문화 Community를 위한 위로 공연이 Youth Orchestra Ensemble(SEMO) 와 함께 협연 하게 됩니다.
공연날짜: 12월 10일 7 pm
장소: Glendale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570 N.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4
Office : (323) 660 - 5292

Serving the Community Since 2004
OASIS Newsletter

오아시스

오아시스 창간호 | 발행인 : 에스터 김 | 편집 : KAWA 홍보부 | 2016 년 12월

E-mail : uskawa.org@gmail.com | www.uskawa.org

KAWA MESSAGE

Esther S. Kim
KAWA 회장

지난 2년간 회장 임기를 다시 맡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KAWA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소수 민족 중 에서도 소수인 한인 여성들, 영어도 잘 통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같은 건강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고 싶어하는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마다하지 않고 더위에도 땀은 흘렸지만 불평치 않았고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함께 봉사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12년간 한결같이 함께 해 오신 이사님들, 봉사자들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KAWA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 모두가 바라던 대로 극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찾아내어 도울 수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부터는 이민 1세 한인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 훈련프로그램이 시작되어 3차 직업훈련 장학금 및 영어교육과 취업 알선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듯이 이제 KAWA는 2세 한인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들이 한국의 얼을 배우며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2018년에는 KAWA 의 Founder Member이시며 많은 헌신봉사를 해 오신 최인애 이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수고해 주시게 되어 큰 기쁨입니다. 또한 전화상담과 이웃돕기 프로그램에 대표로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박지혜 이사님께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KAWA는 큰 축제분위기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많은 수고를 해 오신 존경하는 최인숙 이사장님의 많은 헌신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잊지 못 할 것입니다.
지나간 12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KAWA를 위한 수많은 제안들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믿고 격려해주신 KAWA의 이사님들과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Our Mission

"The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KAWA)
Is a membership driven organization
And we are committed to serve our community
By developing leadership skills and empowering women
Through Christian beliefs and values."

KAWA 한미여성회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권익 성장과 교육
그리고 봉사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Board of Directors

Founder's Council Chair : Yangmi Lee
Chairwoman : Frances Choe
President : Esther S. Kim
VP. Programs : In Ae Choi
VP. public Relations : Young Y. Shin
VP. Community Services : Elizabeth J. Park
VP. Fund Development : Kyung Hee Kim

Youngshin Lee
Janice Choi
Byung Im Chung
Sunny Hong Kim
Elizabeth Lee
Jinsook Cho
Sarah Jun
Hiesung Park
Sook Ja Park

Christmas Party [초대합니다]

2016년 한 해 KAWA와 함께 커뮤니티에
어려운 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2월 1일 2016년(목)
오전 11시 - 오후 1시

최인숙 이사장님댁
711 Inverness Dr.
La Canada, CA 91011
예약 : 323-660-5292

KAWA MEDIA

12주년 창립 기념행사

지난 7월 21일 12주년 창립기념 행사가 가든스윗 호텔에서 회원 및 후원자들 200여 명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 오신 유엔젤 보이스 보컬그룹의 특별 공연을 비롯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 UANGEL VOICE의 특별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Fundraising Chair 이양미 이사님의 수고로 유명한 Artist들의 그림을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총 10점의 미술작품이 소개 되었는데 KAWA한미여성회를 후원해주시는 창석자들의 열띤 호응으로 7점이 팔렸습니다.

▸ 유명한 Artist 들의 그림을 둘러보는 모습

이날 이웃돕기를 위한 Fundraising 에서는 $17,100 가 모금되어 KAWA의 이웃돕기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활기를 띄게 되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2016년을 비롯해서 내년에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한미여성회 임원진들

KAWA HOPE SCHOLARSHIP

간호 조무사 자격증(CNA) 취득 준비과정 개강

한미여성회에서는 한인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간호조무사(Certified Nurse Assistant)'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CNA 프로그램은 1년에 2번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명, 하반기에는 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 1기 장학생 (Esther Lee)
▸ 2기 장학생 (원은주, 김영연, 크리스틴 김, 최원선, 성가원)

장학생에 선발된 간호조무사 직업훈련생들은 적십자에서 진행되는 교육비 $2000 상당의 장학금과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CNA 장학생 지원자격 : 고교졸업 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3기 장학생 (김원숙, 윤미혜, 이효숙, 황경란, 김희선, 이윤서)

KAWA ACTIVITY

심리 상담 교육 실시

9월28-30일에는 상담과 정신분석심리교육이 상담원 교육훈련을 위해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James C. Kim 박사, 여명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James Kim 박사님, 박지혜 이사님 그리고 수강생들

KAWA ACTIVITY

빅토빌 산불 이재민 구호성금 전달

지난 8월 16일 필랜 인근 카혼패스 '불루컷'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해 구호 성금 $3000을 전달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 한인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고자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 빅토빌 산불 이재민 구호성금을 전달한 최인숙 이사장

KAWA 봉사자들에게 감사패 증정

지난 9월 15일에 추석을 맞이하여 헐리우드 차 병원에서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지난 30년간 신생아옷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KAWA봉사자팀에게 감사패와 만찬을 열어주었습니다.

▸ 헐리우드 차 병원에 초대된 KAWA 봉사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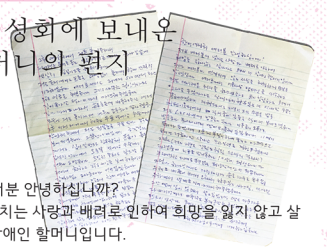
올해도 풍성하게 대추를 수확했습니다

회관 뒷마당에서 대추 수확을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확한 대추는 한 봉지에 $20에 판매 되었으며 수익금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대추수확에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신 장명자, 박숙자, 김용자

KAWA STORY

한미여성회에 보내온 박 할머니의 편지



한미여성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과 배려로 인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84세의 장애인 할머니입니다.
제가 한미여성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흐려서 실명할 수도 있는 백내장을 앓고 있었지만 수술받을 형편이 못 돼 노심초사하던 중 한미여성회의 '이웃 사랑 캠페인' 소식을 듣고 제 처지를 알려 드리게 됐습니다.
저의 고향은 전쟁의 격전지였던 강원도 철원입니다. 6.25한국전쟁 때 방공호에 있다가 미 공군의 오폭으로 방공호가 무너져 내려 땅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11명이 방공호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질식하여 숨지고 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입은 다리 부상은 전쟁 중이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평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리 대신에 손을 자유로 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바느질, 뜨개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간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아주 작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딸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는데 렌트비 인상과 종업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장 문을 닫을 지경이 되면서 더 이상 딸집에 기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는 교회 권사님 댁에서 기거를 하던 중 제가 한미여성회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한미여성회에서는 저의 어려운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500라는 성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점심식사와 집에 돌아 갈 때는 택시비까지 챙겨주시며 길가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시는 한미여성회 분들의 따뜻함에 저는 목이 매었습니다.
한미여성회는 비젼케어에서 해주는 무료 백내장 수술을 알선해 주셔서 저는 왼쪽 눈 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장님과 여러 임원들께서는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쳐 푼푼이 모은 돈으로 000 안과에서 오른쪽 백내장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흐릿한 두 눈으로 앞도 잘 못 보던 저에게 환하고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시다니, 이렇게 감격스럽고 고마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걸치레 하는 봉사단체가 많은 데 한미여성회 여러분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미여성회를 연결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제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부지런히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